

근대 이후의 도구적 이성(내지는 형식적 합리성)은 자아를 다른 개관적 대상처럼 수량화시키고 정형화시킴으로써 자아만이 내포한 고유의 존재론적이고 규범적인 정체성을 버리게 한다. 자아의 정체성은 개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인데, 형식적 합리성이 공동체적 삶과 가치를 비합리성의 영역으로 몰아냄으로서 자아는 뿌리 없는 개체가 되고 고정적인 정체성을 더 이상 갖기 힘들게 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반성능력을 기반으로 한 인간 관계가 공동체적 소속감을 상실한 채 사회적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책을 가까이 하는 직업이지만 소설책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최근 우연히 “사슴벌레 여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이 주는 느낌이 너무 감성적이고 또 신간 소설은 시간낭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내용이 꽤 흥미로웠다.

문학에는 문외한이어서 문학적인 평이나 작가가 정말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서 어른거리는 고독한 사이보그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 가는 글이었다. 그런데 다른 신간소설을 읽었을 때와는 달리 책에서 나오는 여러 구절들의 여운이 꽤 오래 남아 있다. “내게 만약 휴대폰이 없다면 텔레비전이 없다면 또 컴퓨터와 신용카드와 자동차가 없다면 과연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내 신분과 정보를 보장하고 관리해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

몇 년 전 본 영화 중에 산드라 블록이 나오는 “The Net”라는 영화가 있었다. 컴퓨터 범죄 조직의 음모로 인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주인공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주인공은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컴퓨터 상에서 지워짐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지만, 사슴벌레 여자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기억이식 회사로부터 파견된 사이보그들에 의해 사이버 무인 호텔에서 타인의 기억을 이식 받는다. 기억을 이식 받은 사람들은 기억이식 회사의 사이보그들이 관리하는 하위 사이보그가 되면서 그 징표로 등쪽 어깨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사슴벌레 문신이 새겨진다.

사슴벌레는 자신의 기억을 버리고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자기 정체성을 지우고 타인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이보그적 삶의 가능성을 컴퓨터와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통해 위로 받는 오늘날의 우리들에 대입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기억뿐 아니라 부작용으로 타인의 감정까지 전이되어 혼돈에 빠지게 되는 상황설정은 자아도 아니고 타자도 아닌 흐릿한 경계 위에서 모호한 삶의 실존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이보그란 것은 다름 아닌 형식적 합리성의 다른 이름 즉

정보사회에서 고도화 될대로 고도화된 형식적 합리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면담을 하면서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 면담대상 학생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학교의 학사제도가 정보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매우 자주 바뀌어서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내 머릿속에 부분적인 둔주(fugue : 찔막찔막한 기억상실)가 형성된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어깨위로 사슴 벌레 몇 마리가 기어가는 것 같다.